# 求禮 鼈山磨崖如來立像

秦 弘 燮



求禮邑 南方에 오뚝하게 솟아 있는 山이 鼈山(一名 白雲山)으로 있다。標高 五〇〇m나 되어 보이는 이 山의 山頂은 岩石이 솟아 있고 東으로 멀리 華嚴寺의 寺域이 바라다 보이며 이 山 밑을 구비쳐 흐르는 蟾津江이 흐르고 있어 鼈山이란 이름도 이런데서 생긴 듯하다。

山頂에는 四聖庵이라는 庵宇가 있고 그 南쪽에 西向한 大岩石이 聳立하였고 그 앞에 左右로 別個의 屛風같이 岩石이 솟아 Ω形을 이루고 있다。如來像은 一〇m에 가까운 西向한 岩石下部에 線刻되어 있다。

頭·身 兩光背가 있는 立像은 全高 約 五m에 身高 約 四m이다。上半部는 刻線이 比較的 明瞭하나 下半部는 희미하여 特히 臺座部分은 分別하기 힘들 程度이다。肉髻는 큰 便이고 顔面은 豊滿하며 正眼正視하고 있다。兩耳는 길게 늘어졌다。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法衣는 通肩이며 衣紋은 腹前에서 弧線이 連續되었고 두 팔에 걸친 衣端이 밑으로 늘어지면서 左右로 展開되고 있다。밑으로 늘어진 法衣는 前面 兩脚사이에서 마치 慶州 斗垈里 磨崖三尊佛 本尊像의 衣文과 같이 一種의 花文같은 形態를 이루는 듯하다。그 밑으로 兩足의 位置나 臺座의 形態는 刻線이 희미하여 잘 알아보기 힘들다。右手는 가슴앞까지 들어서 外掌하였고 左手는 腹前에서 內掌하고 있는데 모두 拇脂와 長脂를 대고 있는 듯 하다。背光은 二重刻線으로 頭光과 身光을 나타내고 있는데 身光 內側에 左右 各 三處에 蕨形의 草文 三條가 있고 頭光 外側에는 頂上과 左右에 簡單한 火焰文이 있다。

이 磨崖佛이 있는 位置는 이 近處에서는 相當한 景勝地로 보여지며 그 山頂에 솟은 巨大한 岩石에는 磨崖像이 있음직한 곳이다。이들 岩石中 正西向한 岩石을 擇하였고 그 前面 左右에 岩壁이 있어 絶好한 位置를 擇하였다。本像은 그 方向으로 보나 手印으로 보나 阿彌陀如來像이 아닌가 보여진다。下部에 이르러 一部 磨損된 部分이 있고 그다지 刻明하지는 못하나 刻線이 잘 남아 있고 上半身은 比較的 功을 드린 痕蹟이 보인다。造成은 高麗初로 보여진다。

全高 四·八九m 身高 三·八九m 頭高 〇·七三m 肩幅 〇·九八m 身光幅(最大) 一·六八m

# 瑞山出土 金銅佛立像

李 殷 昌

瑞山郡 浮石面 江堂里 ① 寺址로 推定되는 곳에서 部落民 李敦敎氏에 依하여 偶然히 發見된 出土品인데 浮石寺(浮石面 都飛山) 住持 任啓福氏가 現在 所藏하고 있다。

이 佛像은 鍍金部分이 벗어진 곳이 있으나 現今도 그 金色이 燦爛하며 總高 九·三cm로 直立正面觀의 鍍金小像이다。

頭部는 磨滅로 그 모습을 분간하기 어려우나 仔細히 살펴보면 突起部가 殘存하여 寶冠을 戴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。顔部는 金皮가 褪落되어 分明치 않으나 半月形의 眉線과 眼尾가 若干 위로 치켜 올라감이 보이고 大體로 溫容豊頰의 表現이다。兩手는 正前에 모아 合掌하였으니